

닷새간의 추모 열기, 독립정신·국민통합의 시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이 남긴 것

한·카자흐 전략적 동반관계 현지묘역 관리 MOU 체결

안중근 의사 등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지속적으로 추진

장군의 귀환. 봉오동·청산리 대첩의 영웅 홍범도 장군(1868~1943)의 유해가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와 지난 달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대통령 특별사절단 출발에서부터 안장식까지 닷새간 이어진 장군의 유해 봉환은 많은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추모 열기 속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00주년을 맞은 봉오동 전투, 당시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독립운동의 영웅은 그렇게 서거 78년 만에 유해로 고국의 품에 안겼고, 이 기간 동안 그는 국민 모두에게 당시의 뜨거웠던 독립정신과 오늘의 국민통합이라는 과제를 분명하게 상기시키고 영면에 들었다.

귀환에서부터 안장까지 매 순간 많은 화제를 낳긴 홍범도 장군은 오늘을 사는 후손들에게도 다시 새겨야 할 많은 의미와 성과를 남겼다.

유해 봉환, 최고의 예우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1994년부터 추진되어 난항을 거친 끝에 비로소 27년 만인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국민 방문 때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유해 봉환을 요청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양국은 봉오동 전승 100주년인 지난해 유해 봉환을 합의했으나 코로나19로 미뤄지다 이번 토카예프 대통령 국민 방한을 계기로 유해 봉환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유해 봉환 과정은 국권 회복과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한 독립영웅을 잊지 않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한다는 보훈의 가치를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현지 묘역에서의 추모식에서부터 대전현충원 안장까지 최고의 예우와 엄숙한 절차 속에서 진행됐다. 14일 황기철 보훈처장 등 대통령 특사단은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공군 특별수송기로 장군의 유해를 모셨으며, 특별수송기가 우리 영공에 진입할 때는 공군 전투기 6대가 조국으로 귀환하는 장군을 호위했다.

장군이 남긴 양국 든든한 유산

홍범도 장군의 정신은 양국 땅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투쟁과 애국의 상징으로 더욱 깊게 새겨진다.

우선 카자흐스탄 현지의 장군 묘역은 현지 고려인들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한민족 정체성의 장소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지난달 1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에서는 보훈처와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주(州) 정부가 홍범도 장군 묘역의 보존·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계기로 한·카자흐스탄 양국의 우정은 더욱 깊어지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립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과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현지 고려인을 통해 양국의 우정은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유해 봉환을 주관했던 국가보훈처는 현안으로 남은 안중근 의사 유해를 비롯해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달 14일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홍범도 묘역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주요내빈이 함께 묵념을 하고 있다(위). 지난달 14일 홍범도 장군 추모식이 끝나고 홍범도 장군 유해가 운구용 차량에 실리고 있다(아래).



지난달 14일 현지 추모식이 끝나고 홍범도 장군 유해가 운구용 차량에 실려 크즐오르다 홍범도 거리와 문화회관 등을 거쳐 크즐오르다 주병원 영안실에 임시안치되는 모습.

홍범도 장군은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일제강점기 독립군을 이끌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의 영웅으로, 일본군에게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던 홍범도 장군.

1868년 8월 27일 평범한 농민의 집안에서 태어난 장군은 1907년 함경도와 평안도 일대의 포수들을 중심

으로 의병을 조직해 일본군과 여러 차례 전투를 치르며 대담무쌍한 활동을 벌였다.

1919년 3·1운동으로 항일의 열기가 높아지자 장군은 간도와 북간도로 무대를 옮겨 의병 출신과 간도, 노령의 동포들을 모아 대한독립군을 조직하고 국내진공작전을 펼쳤다.

장군은 1920년 6월 군무도독부와 국민회 독립군 부대와 연합해 중국

왕청(봉오동)에서 일본군 1개 대대를 섬멸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전투가 바로 한국 독립무장투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 가운데 하나인 봉오동 전투. 이어 10월에는 북로군정서 김좌진 장군 등과 함께 일본군을 공격해 대규모 승전을 거두는 청산리 대첩의 주역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1931년 만주사변 후 소련 정부의 한인강제이주정책에 의해 1937년 카

자흐스탄 지역으로 이주를 당해야 했다. 1938년 4월 유해가 묻힌 크즐오르다 도시구역으로 이주했고, 장군은 끝내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1943년 이역만리에서 별세했다.

정부는 1962년 고난의 역사 속 빛나는 투쟁을 벌인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으며, 이번에 유해 봉환과 함께 다시 최고훈격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